

수영과 미술, 분야 다르지만 꿈 향한 열정 같아

꽃·나무·풍경... 삶이 예술로

강경숙 개인전, 8월1~6일 무등갤러리

‘열정과 도전.’

최근 막을 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상징하는 키워드다. 두 단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일궈가고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도 딱 어울리는 단어다.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초대해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일보사와 은암미술관이 주관한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기념 청년작가 13인전’에는 문화예술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 지역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 열린 오픈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18일간 광주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예상 광주의 청년 작가들을 ‘발견’하고 ‘응원’하는 전시로 손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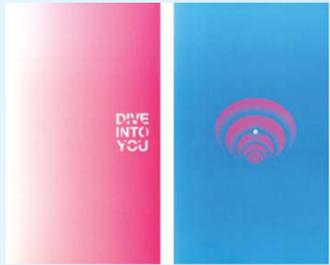
“DIVE INTO YOU”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노여운, 박성완, 박인선, 선영현, 설박, 송지운, 신호운, 양나희, 양세미, 윤준영, 이인성, 임현채, 최요안 등 13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사진, 설치 등 다채로운 작품 40여점을 선보였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감상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미술관 나들이를 즐겼다. 골판지로 작업하는 양나희 작가의 작품 중 광주 MBC가 보이는 ‘눈 내린 月山’은 ‘이 장소’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으며 ‘골목길 작가’로 불리는 노여운 작가의 따뜻한 풍경 작품들도 인기를 모았다. 두터운 마티에르와 거칠고 고감한 붓질이 인상적인 박성완 작가의 작품은 강렬함을 선사했으며 아득한 풍경 속에 점처럼 박힌 외딴집이 인상적인 윤준영 작가의 ‘반짝이는 빛 속에 있기를 바랐는데 매일 까만 어둠을 헤맨다’ 앞에서 한참을 머무르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 청년작가 13인전’ 성황리 막 내려

청년작가들 발굴·응원... 한글·영문 책 형태 도록 발간

“세계적 행사 같이 할수 있어 보람... 다양한 전시 마련할 것”



180여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전시도록

그밖에 화폭에 각양각색의 잡지를 콜라주해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최요안 작가의 작품과 화선지에 구긴 종이조각을 붙이고 먹의 농담을 활용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 ‘어떤 풍경’ 시리즈의 설박 작가, 박인선 작가의 작품도 관심을 모았다. 수영대회를 맞아 새롭게 제작한 ‘기다리고 기다리던’ 등의 작품을 선보인 신호운 작가의 작품은 제작 과정을 궁금해하는 관람객들이 많았다.

이번 전시회 도록과 달리 책 형태로 제작한 도록도 눈길을 끌었다.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된 도록에는 청년작가들을 격려하는 김여송 사장의 인사말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축사 등을 비롯해 참여작가 13명의 작품이 실렸다. 특히 이번 전시회 뿐 아니라 작가들의 다채로운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다른 작품들도 함께 담아 각 작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180여페이지에 달하는 도록에는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한 윤익 미술문화기획자가 각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평한 ‘자신을 찾아가는 진실한 노력’을 실어 무게감을 주었다.

같은 기간 대인예술아시아 아트숍 ‘수작(手作)’에서 열린 연계전시 ‘다이브 인투유 에디션’ 전도 인기를 끌었다. 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토요일은 물론이고 금요일에도 문을 연 아시아에는 외국인 등 많은 방문객이 몰렸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여작가 중 양나희, 노여운, 양세미, 이인성, 임현채 작가 등의 작품이 판매됐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도 나머지 작가들의 에디션 작품은 수작에서 구입할 수 있다.

“광주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 참여하게 돼 의미가 있었다”는 이인성 작가는 “수영과 미술이 분야는 다르지만 끝없는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같다”며 “이번 전시에 좋은 동료작가들과 함께 참여해 즐거웠고, 청년작가들을 조명해준 이번 전시가 앞으로 행보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 초대 작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양세미 작가는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수영장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영대회와 타이밍이 맞아 주목받은 것 같다”며 “혼자 화실에서 작업할 때와 달리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작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심있게 지켜봐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총괄 기획한 와사비 김대옥 대표는 “같은 젊은이로서 세계적인 행사에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힘들면서도 보람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기획자들과 협업해 지역 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회와 행사들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노여운
박성완
박인선
선영현
설박
송지운
신호운
양나희
양세미
윤준영
이인성
임현채
최요안



‘노단새’

수채화가 강경숙 작가 첫번째 개인전이 오는 8월1일부터 6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삶이 예술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흐드러지게 핀 꽃과 나무, 아름다운 남도의 풍경, 소박한 생활 모습 등을 은은한 수채화에 담아 선보인다.

아이들 키우며 주부 역할에 충실했던 강 작가는 오십의 나이를 넘기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꿈의 보따리를 풀어놓기로 했고, 수채화가 김효삼 작가에게 지도를 받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붓을 놓지 않았던 그는 제3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담은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시에서는 눈을 이고 있는 붉은 동백, 한여름의 전령사 수국과 해바라기 등 화사한 꽃무리와 갓 결혼한 부부가 폐백을 올리는 모습을 담은 ‘좋은 날’과 시원한 소나무 쏟아지는 풍경을 담은 ‘피사’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한 강 작가는 지금까지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추천 작가다. 오픈 행사 8월 1일 오후 5시 30분. 문의 062-236-25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충장 디스커버리 - 지역 아카이빙 프로젝트’

‘소년의 서’ 31일 이화자수 김재경 대표 초청

광주극장 뒤에 자리한 독립서점 ‘소년의 서’ (대표 임인자)는 오는 31일 오후 7시 ‘문화가 있는 날’ 2019 동년책방 문화사랑방 프로그램으로 ‘충장 디스커버리-지역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이 프로젝트는 충장로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도시의 생성과 발전, 사라짐의 자취를 찾아 기록하고 공유하는 기획으로 30-4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충장로 상인들을 중심으로 충장로 동네 박물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술 아카이빙을 수행하고 있다.

첫회 행사에서 1973년 개업한 노들담 제와 윤종찬 사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에는 ‘불에 녹고 찢어진 옷-서민들과 함께 한 이화자수’를 주제로 지난 1983년부터 충장로 5가에서 이화자수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경 대표를 초청, 충장로의 역사와 서민들과 함께 한 자수의 세계를 살핀다. 참가비 5000원. 예약 필수. 문의 010-3256-262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10일 개막해 28일 막을 내린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기념 청년작가 13인전’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광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리스케이즈 CES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인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